돌아온 팀 킴 "다시 태극마크 달겠다"

갑질 파문 극복하고 동계체전 여자컬링 은메달

성공적으로 복귀를 신고한 여자컬링 '팀 킴'(경북체육회)이 태극마크 탈환 의지를 불태웠다.

팀 킴은 1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여자컬링 결승 전에서 경기도청에 6-7로 패하면서 은메 달을 획득했다.

9엔드까지 6-6으로 팽팽했었기에 아쉬 움이 남는 결과였다.

팀 킴은 12일 8강전에서 부산광역시에 19-2 대승을 거두고, 4강전에서는 현 국가 대표팀인 신흥 강팀 춘천시청을 연장 혈투 끝에 6-5로 꺾으면서 여전한 기량을 발휘

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까지 팀 킴은 우 여곡절을 겪었다.

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 달을 획득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지만, 그 이면에서는 지도자 가족에게 갑질을 당 해왔다고 지난해 말 뒤늦게 털어놓았다.

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대회 출전은커녕 훈련도 제대로 못 하던 팀 킴은 문제가 된 지도자 가족이 일선에서 물러난 지난해 12 월에야 의성컬링장에서 훈련을 재개할 수

또 '안경선배' 김은정이 결혼 후 임신하면 서 스킵이 김경애로 바뀌었다. 후보 선수이 던 김초희가 서드를 맡았고, 김영미와 김선 영은 그래도 리드, 세컨드 자리를 지켰다.

약 50일 동안 포지션 변화에 적응하고 이번 동계체전에 나온 팀 킴은 "결승에서 져서 조금 아쉽지만, 우리가 보완해야 할



13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일반부 결승전에서 '팀킴' 경북체 가자~ 영미 육회 김영미가 스톤을 던지고 있다.

고 소감을 말했다.

김초희는 "짧은 시간에 호흡을 맞춰서 최 대한 준비했는데, 조금 아쉽지만, 보완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. 더 잘 준비해서 다음 경 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"고 밝혔다.

빙판이 아닌 코치석에서 선수들을 지켜 본 김은정은 "어제는 게임 컨트롤을 잘했 는데, 오늘은 초반에 경기가 조금 안 풀리 면서 힘들어하더라.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

점을 찾았다.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" 다음에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믿음을 보냈다.

> 준결승에서 접전을 펼친 춘천시청, 결승 에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도청 등 팀 킴의 대항마가 대거 나오면서 태극마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.

> 김은정은 "우리나라 여자팀이 많이 성장 한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. 세계 무 대에 어느 팀이 나가든 한국이 정상급 실 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"이라며

라이벌들을 출현을 반겼다.

이어 "우리는 포지션 변경 후 나온 문제 를 보완해야 한다. 동계체전은 급하게 준 비했지만,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7월 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다시 기본부터 준비하겠다"고 말했다.

김선영은 "7월까지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"고 각오를 다 /연합뉴스

PGA 우승 129만달러 받은 쿠처 캐디에게 5000달러만 지급 논란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 대회에서 우 승한 선수와 캐디 사이에 상금 분배 논란 이 불거졌다.

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13일 맷 쿠처(미국)와 그의 임시 캐디를 맡았던 다비드 오르티스 사이의 논쟁을 보도했

쿠처는 지난해 11월 PGA 투어 마야코 (약 14억5천만원)를 받았다.

쿠처는 이 대회에 자신의 캐디가 아닌 임시 캐디 오르티스와 함께 나갔는데 우승 후 캐디의 몫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 만원 정도 되는 5천 달러만 줬다는 것이

일단 이는 PGA 투어 관례에 어긋나는 점이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. 지급 비율인 것은 사실이다.

골프닷컴은 "일반적으로 PGA 투어에 바 클래식에서 우승, 상금 129만 6천 달러 서 선수 상금의 5%를 캐디가 갖는다"며 "다만 10위 안에 들 경우 좀 더 많은 비율

을 나눠 갖고, 우승하면 10%를 주는데 대 개 이런 비율은 구두로 합의한다"고 설명

따라서 PGA 투어 관례대로라면 오르티

스는 5천 달러가 아니라 약 12만 9천 달러 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. 그런데 쿠처와 오르티스는 이 대회에만 임시로 호흡을 맞춘 사이라 대회 개막 전

에 주급 3천 달러에 계약했고, 쿠처의 성적 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더 주기로 했다는

오르티스에 따르면 대회를 마친 뒤 쿠처 가 건넨 봉투에는 20달러는 물론 5달러짜 리 지폐까지 더해 총 5천 달러가 정확히 들 어있었다.

계약된 3천 달러에 우승을 차지한 데 따 른 추가분 2천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.

이후 쿠처 측은 추가로 보너스 1만 5천 달러를 더해 총 2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 했으나 오르티스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 려졌다.

오르티스는 최소한 5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.

오르티스는 "쿠처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 한 선수지만 대회를 마친 뒤가 실망스러웠 다"고 말했다.

그는 대회를 마친 직후에는 "내년에 쿠처 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면 다시 그와 함께 하고 싶다"고 말했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"노, 땡큐"라고 말을 바꿨다.

'도마 황제' 양학선 3월 월드컵 대회 출격

'도마 황제'양학선(27·수원시청)이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힘차게 비

지난해 말 대표팀에 선발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훈련하는양학선은 3월 국제체조연맹(FIG) 월드컵 대회에 잇달아 출격해 컨디션을 끌어올린다.

13일 대한체조협회에 따르면, 양학선 은 3월 14~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, 3 월 20~2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각각 열리 는 FIG 종목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

양학선은 주 종목인 링과 도마에 출전 해 기량을 평가받는다.

그는 지난달 초 손등 뼈가 부러져 이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. 지금은 고정핀을 제거한 상태로, 근력만 올라오면 대회에 뛸 수 있다고 한다.

FIG 종목별 월드컵 대회엔 2020년 도 쿄올림픽 개인 출전 자격을 주는 포인트

우리나라가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하 지 못할 경우 선수들은 종목별 세계랭킹 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 를 밟을 수 있다. 그러려면 FIG 월드컵 대회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

양학선은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도 마에서 우승해 한국 체조에 사상 첫 올림 픽 금메달을 선사했다.

그러나 오른쪽 허벅지 부상(햄스트 링)과 오른발 아킬레스건 수술로 2016 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엔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.

양학선은 햄스트링 치료를 병행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해 다시 도약했 고, 올림픽 메달 색깔을 가늠해 볼 중요 한 2019년을 맞이했다.

양학선의 최대 강점은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는 자신감과 어떤 무대에서도 실 수 없이 고난도 기술을 펼치는 두둑한 배 짱이다. 체조협회가 양학선에게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

양학선은 FIG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 로 6월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, 10월 세 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.

'태권도 스타' 이대훈 10년 연속 태극마크

세계선수권 네번째 금 도전

세계 최강의 태권도 스타 이대훈(27· 대전시체육회)이 10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네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.

이대훈은 12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 에서 끝난 2019년도 태권도 국가대표선 수선발 최종대회 남자 68kg급 결승에서 박지민(용인대)을 18-9로 누르고 1위를

이로써 한성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대훈은 10년 연속 국가대표로 뛰게 됐다.

선수층이 두꺼운 우리나라 태권도계 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로 이대훈 의 자기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 여준다. 이틀 동안 남녀 8체급씩, 16체급으로

나눠 열린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는 15 ~19일(현지시간)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201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한다.

이대훈에게는 맨체스터 대회가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다.

2011년 경주, 2013년 멕시코 푸에블

라 세계선수권대회 63kg급에서 2회 연 속 정상에 오른 이대훈은 2015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대회에서는 같은 체급 16강 에서 져 3연패 달성에 실패했다.

하지만 2017년 무주 대회에서 68kg급 정상에 올라 세 번째 세계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

여자 73kg급에서는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 이다빈이 2016년 리 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챔피언인 베테랑 오혜리(춘천시청)와 경희대 명미나를 차례로 꺾고 세계선수권대회 첫 출전 자 격을 얻었다.

한편, 한국 경량급 차세대 기대주로 주 목받는 고교생 장준(풍생고)은 11일 열 린 남자 58kg급 최종결승에서 올림픽체 급 랭킹 1위인 김태훈(수원시청)을 8-5 로 누르고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.

김태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국가대표로 뛰며 세계선수권대회 3회 연속,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 을 딴 강호다.

하지만 지난해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에 이어 또다시 장준의 상승세 앞에 무릎 꿇으며 세계선수권대회 4회 연속 금메달 도전 기회를 날렸다.



2월 16일(토)

▲광주금당산악회 2월 16일(토) 압해도 송공산(231m) 시산제 산행, 봉선동 롯데마트앞 07:10, 진월동 식자재마 트앞 07:20, 염주체육관 07:30, 한국병원앞 07:40, 문예 회관 후문 07:50,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:00 ※다음카 페 광주금당산악회 ☎ 010-6294-2678/010-3620-

▲광주호산회 2월 16일(토) 고흥 마복산. 중식제공, 07: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, 08:00 롯데백화점, 08:15 예술회관후문 ※다음카페 광주호산회 ☎ 010 4621 2166, 010 6702 9796

2월 17일(일)

▲광주산이모산악회 여수 봉황,금오산(향일암)시산제, 2월 17일(일) 염주체육관 07:00, 금호지구대 07:05, 무 각사 07:10, 시청정문건너 07:15, 문예후문 07:25, 비엔 날레 주차장 07:30 ※다음카페:광주산이모산악회 T. 010-3603-7718

▲전남산악회 2월 17일(일) 장성호 수변길트레킹, 출렁 다리, 시산제 염주체육관 07:30, 운진각앞, 양동시장, 광 주역 08:00, 두암동 홈플러스 08:10, 고서, 창평 ※다음 카페 전남산악회 🕿 010 4615-5810, 010 5378 5702

(761m),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:50, 교직원공제회 관 08:00, 예술회관후문 08:10,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:20 ※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☎ 010 8612 4504,

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: 망 한소운(340405-XXXXXXXX)

 최후주소 : 광주 북구 생용길 16(생용동) 피상속인 망 한소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C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2143호로 신 청하여 2019년 1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

2019년 2월 14일 • 상속인 : 1. 이호광(950917-XXXXXXX) 광주 북구 금녕길 12-1 <mark>(두암동)</mark> 2. 노지현(891031-XXXXXXX)

· 신고기간 : 2019. 2. 14.~ 2019. 4. 26.

• 채권신고장소 : 상속인 4. 문민주의 주소

상속인 2.3 주소 - 서울 강서구 양천로 140, 203동 401호(방화동, 미곡현대아파트) 4. 문민주(960527-XXXXXXXX) 5. 문성주(000407-XXXXXXX) (미성년자이므로,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문형태, 모 이선화)

. 노송현(920216-XXXXXXXX)

2월 20일(수) ▲광주청록산악회 2월20일(수) 경남 창원시 무학산

2월 23일(토)

▲광주호산회 2월 23일(토)해파랑길21코스, 05:30 풍암 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, 06:00 롯데백화점, 06:15 예술 회관후문 ※다음카페 광주호산회 ☎ 010 4621 2166, 010 6702 9796

2월 24일(일)

▲광주자연보전답사회 2월 24일(일) 전북 순창군 회문산 (837m), 염주체육관 07:40, 무등경기장 08:00, 동광주

조직변경공고

본 회사는 2019년 2월 13일 사원총회 에서 사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주식회사 핸드마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 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
2019. 2.14. 유한회사 핸드마인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64(월산동) 대표이사 박규현

홈플러스 08:20 ※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☎ 010 3666 3291, 010 2663 0304

2월 27일(수)

▲광주청록산악회 2월27일(수) 전남 진도 남망산(164m)-시산제,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:50, 교직원공제 회관 08:00, 예술회관후문 08:10,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:20 ※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☎ 010 8612 4504, 010 3000 1134

상속한정승인공고

• 피상속인 : 망 주종림(560709-XXXXXXX) 최후주소 : 여수시 돌산읍 봉림길 61-1

· 등록기준지 :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156 피상속인 망 주종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

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 단21호로 신청하여 2019년 1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 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 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 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

2019년 2월 14일 · 상속인 : 오충심(610706-XXXXXXX) 여수시 돌산읍 봉림길 61-1

• 신고기간 : 2019. 2. 14.~ 2019. 4. 26. 채권신고장소 : 상속인 오충심의 주소

부동산 매매

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258번지 ·대 지 645㎡ ·매매가 1700만원(절충) ·소유자 010-4243-3858

(건설업 분할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)

테를 분할하여 진양토건(주)(이하 "을")에 합병하고, 갑"과"을"은 존속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바라며, 아울러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. 02. 14.

분할 합병할 건설업의 종류 - 토목건축공사업 150470호 호 : 국제건설산업(주) 소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40-26 ,상기동 203호(모두원웰리스)

주 소: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28, 401호 대표이사:배 저 히 브유거석어: 토모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주권제출

제인 의견 및 수권세술 간 : 2019년02월14일 ~ 2019년03월15일(30일간) 활장소 - "2" : 국제건설산업(주)(전화: 061~552~2435)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원년로 1440-26, 삼기동 203호 (모두왬웨리스) - "울" : 진양토건(주)(전화: 061~555~2001)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28, 401호

방수 보수공사 만 전문

옥상·적벽들 및 곰팡이 해결 시설물 일체 보수공사는 진단과 자재선택이 중요 40년 노하우 • 문의 환영 • 그린엔지니어링

☎ 010−8971−5337

상가(빌딩)매매 -진월동-

대 지 1,132㎡

4,739㎡(공실없음)

78억 매 가 수익률 6.8%

12 010-2602-7266

LOTTE CINEMA | 충장로괸

1관 등인

극한직업 해피 데스데이 2 유

3관 4관 증인

9관

기묘한 가족

5관 6관 증인, 해피 데스데이 2 유 알리타: 배틀 엔젤

7관 씨네커플 | 극한직업, 뺑반 8관 씨네커플 | 메리 포핀스 리턴즈, 신밧드와 마법 양탄자

단체 및 대관문의 1544-8855

ළිහළි පිහැරුණ

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2019 2. 21. ~ 3. 24 목가구와 달항이리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







문의 (062)613-8353

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1회 정기연주회 슈만의 봄

3.8(금)19:30 광주문예회관 대극장

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3.12(화) 11:00 사랑의 꿈

광주문예회관 소극장

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큐레이터 : 낭만에 대하여

3. 21(목) 18: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







